미얀마 경제의 미래 : 한국인가 나이지리아 인가

·

**번역 요약본**

현재 미얀마는 전례없이 서양의 투자자 쌍무공여기관에 의하여 그

경제상황이 개방된 상황에 서 있다. 미얀마의 경우 국가의 장래 경 제정책의 선택과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교차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. 지금의 선택으로 인해 앞으로 30년 이후에 산업화 된 한국이 될 것인지 자원으로부터의 저주인 나이지리아처럼 될 것인지의 기로 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.

국제 통화 기금 (IMF), 세계 은행, 그리고 서양의 쌍무 공여 기관들 집단은 기술을 지원한다거나 정책 조언 등 및 아마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, 미얀마에 대하여 비 간섭을 원칙으로 하 는 자유 무역의 원리와 개발 모델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으로 무간섭 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이론을 미얀마에 도입시키려고 할 것 이다.

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잠재적인 장래산업의 발전을 못하게 막 을 뿐 아니라, 자국의 소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전에 그

발전이 차단되게 된다.

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미얀마에 대하여 강력한 산업 정책을 펼 침으로서 그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를 개발하는 대신에 단지 천연자 원의 발굴에 대하여만 경쟁력을 갖추도록 만들게 될 것이다.

그러므로 미얀마는 이러한 접근 방법을 거부하여야만 한다.

왜냐하면 미얀마의 정책 결정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지난 몇 세기 동안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에 자유시장 경제체제로는 산업화를 이루기가 힘들었고 많은 선진국들은 전혀 자유시장경제 체계를 통하 여 산업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.

그러므로 미얀마는 높은 고용과 공공 투자 등 정책을 포함하여보다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위하여 강력한 정책을 펼침으로서 국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.

이로 인해 효과적인 산업 정책을 이행할 기관을 육성하고 강한 성장 가능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.